

清熱音樂療法을 適用하는 韓方音樂治療에 관한 研究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한방음악치료센터¹

李承鉉¹ * · 金麗眞¹

The Study of Heat-Clearing Therapy as a Method of Oriental Medicine Music Therapy

Lee Seung-hyun¹ * · Kim Yeo-jin¹

¹Dept. of Oriental Medicine Music Therapy Center, Kyunghe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heat-clearing music therapy[清熱音樂療法] as one of the 17 kinds of oriental medicine music therapy.

The heat-clearing music therapy[清熱音樂療法] can be applied to certain types of syndromes. The representative syndromes are flaring-up of the heart Fire[心火], rising of the liver Yang[肝陽], and fidgetiness due to deficiency of Eum(陰, Yin). Metal-Gi[金氣] music and Water-Gi[水氣] music are mainly used in heat-clearing music therapy. The patients with the case of flaring-up of the heart Fire[心火] may listen to Metal-Gi[金氣] music. For the patient with rising of the liver Yang[肝陽], relieving constraint music therapy can be used. In other cases with patients with fidgetiness due to deficiency of Eum, replenishing vital essence music therapy can be used.

This study describes the theory of heat-clearing music therapy[清熱音樂療法] that has a good possibility as a new method of oriental medical treatment.

Key Words : oriental medicine music therapy, heat-clearing music therapy[清熱音樂療法]

I. 緒論

社會가 다르면 그 社會가 만들어낸 文化가 다르듯이, 韓醫學史에서도 각각의 時代마다 發病하는 疾病의 性向도 다르고 그 疾病의 治療法도 달랐다. 現代社會의 복잡한 생활패턴과 경제가치 최우선을 志向하는 社會 구조는 인간성 상실이라는 無形의 疾病을 창출했을 뿐 아니라 七情의 불균형을 동반한 有形

의 육체적 疾病을 계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原因도 분명하지 않은 病이 있는가 하면, 原因은 알아도 現代의학의 方法으로는 더 이상 治療할 수 없는 病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疾病이 現時代에 發生되고 있다. 특히 喜, 怒, 憂, 思, 悲, 恐, 驚, 같은 七情의 不調和가 原因이 되어 發生하는 心因性 疾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社會的, 文化的, 心因性 病因 發病요소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心身一如를 바탕으로 하는 韓醫學은 現代의학으로도 治療할 수 없는 다양한 疾病을 治療하는 學問으로 앞으로 더 各광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이나 서구 유럽에서도 鍼灸 및 약초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확산되고

* 교신저자 : 이승현. 서울 강동구 상일동 149번지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한방음악치료센터, Tel 02)440-7840, Fax 02)440-6296 E-mail : sori-5@hanmail.net. 접수일(2009년 4월 25일), 수정일(2009년 5월 7일), 게재확정일(2009년 5월 15일)

있다.

그러나 韓醫學 연구의 최고를 자처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時代는 변해서 질병의 발생 원인과 病勢의 패턴이 바뀌고 있는데도 한의학의 치료수단은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사회가 변화되어 疾病의 性向과 치료를 받는 환자의 의식수준은 바뀌었는데 韓醫學의 治療法은 바뀌지 않아 韓醫學에 대한 환자의 신뢰도와 치료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이는 학문 발전의 저해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歷代로 시대에 따라 疾病의 樣相이 바뀌면 그 治療法이 달라졌듯, 現代의 疾病 樣態는 七情의 불균형과 不調和를 동반한 육체적 질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七情의 調和와 육체의 調氣, 調身을 다스리는 새로운 치료수단 개발이 필요하다. 韓醫學의 기본 治療思想과 理論에 附合되고 現時代의 질병치료에 쓰일 수 있는 치료수단을 개발하는 일이 절실히 요구된다.

새로운 치료수단의 개발을 미루는 일은, 좋은 兵器는 가지고 있는데, 날 갈기가 싫어서 전쟁터에 무딘 창과 무딘 칼을 가지고 싸우러 나가는 形狀과 무엇이 다른가? 時代의 發生하는 疾病이 다르다면, 시대적으로 治療하는 方法도 달라져야 한다. 心身一如인 학문의 본뜻에 맞고, 한의학의 思想안에 이미 배어있는 五音을 치료수단으로 개발해서 쓰는 韓方音樂治療는 現時代의 疾病을 극복해 내는 한의학의 새로운 治療法으로 쓰이기에 적합한 치료수단으로 思慮된다.

本 연구는 그동안 발표되었던 한방음악치료에 대한 이론논문(12) 및 식물실험논문(3), 동물실험논문(4), 임상논문(5) 등을 통해 검증했던 유의성을 바탕으로

韓方音樂治療에 쓰이는 治療法 中 淸熱音樂治療法이 쓰이는 病證에 대하여 고찰하고, 각각의 病證에 맞는 실행방법에 대하여 論 하고자한다. 연구방법으로는 17가지 요법 중의 하나인 淸熱音樂治療法을 적용할 수 있는 病證을 3가지로 분류하고, 각 병증의 病因에 따른 淸熱音樂治療法에 대하여 고찰한다.

II. 本論

1. 이론적 고찰

1) 음악치료와 한방음악치료의 차이점

韓醫學의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연구된 한방음악치료는 五臟과 五音의 配屬관계와 七情의 상관관계에 의하여 音樂이 우리 인체의 精, 氣, 神에 영향을 주어, 정신 및 정서적인 질병과 연결된 치료 뿐 만 아니라 氣의 昇降出入을 도와 調氣, 調心, 調身에 큰 영향을 끼쳐 中風이나, 癩, 糖尿, 소화기 질환 등 육체의 形質의 疾病 치료 수단으로 鍼灸치료나 약물치료와 더불어 쓰이는 한방치료기술이다.

지금까지의 音樂治療는 심리학이론을 바탕으로 연구되어 서양의학의 신경정신과 영역에서 치료수단으로 쓰이면서 자폐아나 발달장애인의 정신적인 질병의 치료에만 국한되어 쓰이는 음악치료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韓方音樂治療는 정신이나 정서적인 질병의 치료에 쓰이는 한계를 벗어나 精, 氣, 神에 영향을 주어, 정신 및 정서적인 질병과 연결된 치료 뿐 만 아니라 육체의 形質의인 질병에도 치료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음악치료의 이론과 연구라는 점에 우수성이 있다. 정신과 육체를 하나로 보는 한의학 이론에 입각해서, 인체의 組織構造, 生理機能, 病理變化, 診斷, 治法에 맞는 氣를 발하는 음악을 사용하여 陰陽失調를 조절하는 것으로, 기존의 藥物치료나 鍼灸치료와 더불어 시행할 수 있는, 질병의

는 영향.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5. 18(2). pp.190-204.

1) 이승현, 백상용. 생명운동과 성음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방 음악치료의 이론연구 I).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집. 2002. 8(1). pp.27-43.
 2) 이승현, 백상용. 삼음삼양과 울려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2. 15(2). pp.67-84.
 3) 이승현. 오행이론을 기초로 한 음악이 식물의 발아에 미치는 영향. 세술음악연구회 논문집. 2002. pp.183-193.
 4) 이승현, 홍원식. 오행으로 분류한 음악이 누에의 형질변화에 미치는 영향.2003. (한방음악치료를 중심으로). 대한한의학원전학회논문집. 2003. 16(2). pp.1-42.
 5) 이승현, 백유상의 2인. 혈액암 환자에게 실행한 한방음악치료 요법이 백혈구 내 ANC(절대호중구수)수치 증가에 미치는

예방과 치료를 포함하는 心身均衡의 치료정신에 입각한 개념의 치료이다.

각각의 환자에 대한 변증을 통해 환자의 기운의 흐름을 잘 살피고, 순조롭게 氣가 소통되도록 韓方音樂治療를 시행함으로써 인체의 精神氣血을 조절하여 形質의 形質으로 발병한 육체적 疾病治療에 쓰이는데, 생명체의 生長收藏, 生老病死 變化와 이의 토대가 되는 陰陽五行의 관점을 통하여 환자의 상태를 바라보고 진단하며, 치료에 있어서도 이 陰陽五行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치료 계획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치료 방법으로 이러한 점이 서양의 음악치료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七情의 변화나 氣血의 순환은 모두 陰陽五行 운동을 하고 있다. 肝心脾肺腎의 五臟의 활동이 바로 陰陽五行의 법칙을 따르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五神과 七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氣의 흐름으로 본다면 升降과 出入인 것이다. 治療方法은 환자의 病證과 상태에 따라 韓方音樂治療에 쓰이는 17요법 중 개개인의 症狀에 따라 治法을 선택하여 시행한다. 환자가 음악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療法에 따라 분류된 리듬과 악기를 사용하여 치료사를 따라 직접 연주하게 한다. 이를 통해 정신적 질병뿐만 아니라 육체적 질병의 치료수단으로 쓰이는 것이다.

각각의 환자에 대한 변증을 통해 환자의 기운의 흐름을 잘 살피고, 순조롭게 氣가 소통되도록 韓方音樂治療를 시행함으로써 인체의 精神氣血을 조절해 나가 정신적 질병뿐만 아니라 육체적 질병의 치료수단으로 쓰이는 것이 한방음악치료이다.

2) 五臟과 상응하는 分化된 氣

五臟은 五神을 潛藏하고 오장의 五行之氣를 통해 생명활동을 주재하는데, 이때 체내에 위치한 五臟이 천지와 交感할 수 있는 것은 신체 외부로 뻗어 놓은 촉수가 있기 때문이다. 굳이 둘로 나누자면 그 하나는 經絡이고 다른 하나는 七竅(혹 九竅)이다. 경락은 經氣의 흐름을 통해, 身形 전체를 지배하면서 五臟의 의지와 작용을 곳곳으로 전달할 뿐만 아니라, 각 부위나 외부로부터 받은 자극 등을 다시 오장으로 전달

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七竅⁶⁾은 오장의 神志가 직접적으로 외부와 교통하면서 정보를 전달하고 전달 받을 수 있는 수신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하여 『靈樞·脈度』에서 “五臟은 항상 안에서 위쪽 七竅로 문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므로 肺氣는 코로 소통하니, 肺가 화평하면 香臭를 알 수 있고 心氣는 혀로 소통하니, 心이 화평하면 혀는 五味를 알 수 있으며 肝氣는 눈으로 소통하니, 肝이 화평하면 눈은 五色을 분별할 수 있으며 脾氣는 입으로 소통하니, 脾가 화평하면 입은 五穀을 알 수 있으며 腎氣는 귀로 소통하니, 腎이 화평하면 귀는 五音을 알 수 있다.”⁷⁾라고 하여 五臟이 외부의 氣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五臟은 竅를 통해서 외부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意志나 상태를 밖으로 표현한다. 즉 天地의 五行之氣는 七竅를 통하여 인체의 五臟과 서로 직접적으로 교통하며, 五臟은 또한 七竅를 통하여 천지의 변화를 自覺하고 자기의 意志를 내비칠 수 있다. 肝은 눈을 통하여, 心은 귀를 통하여, 脾는 입을 통하여 肺는 코를 통하여, 腎은 二陰을 통하여 外界와 氣를 교류함으로써, 情報를 취득하고 반응을 나타낸다.⁸⁾ 이는 천지간에 분포한 다양한 기질의 事物들이 인체와 교류할 때, 五行의 분화에 따라 다섯 가지로 분절되어 각기 자기와 반응할 수 있는 수용기관을 통해 출입함을 나타낸다. 이렇게 인간의 감각 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반응들은, 이 七竅를 통해서 받아들여 인간의 五臟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6) 竅는 체내에 있는 오장이 외부와 交通하는 통로이다. 인체에는 9개의 竅가 있으니 눈(2개), 귀(2개), 입, 혀, 코, 항문, 精竅(尿孔) 등이다. 이 중 항문과 精竅는 下體에 있기 때문에 안면에 있는 7개의 竅만을 따로 구분하여 7竅라 하고, 하체에 있는 肛門과 精竅를 합하여 九竅라고 하기도 한다.

7)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 서울. 1985. p.115.

“五臟常內關於上七竅也. 故肺氣通於鼻, 肺和則鼻能知臭香矣.

心氣通於舌, 心和則舌能知五味矣. 肝氣通於目, 肝和則目能辨五色矣.

脾氣通於口, 脾和則口能知五穀矣. 腎氣通於耳, 腎和則耳能知五音矣.”

8) 心은 설을 통해 맛을 수용하고, 肝은 눈을 통해 빛을 수용하며, 肺는 코를 통해 냄새를 수용 하고, 腎은 귀를 통해 소리를 수용하고, 脾는 입을 통해 곡기를 수용한다.

치고, 인간은 반대로 이러한 자극에 대한 반응을 五臟의 주도 하에 있는 각 부분을 통하여 외부로 표출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에게 미치는外界의 영향들은 모두 氣 운동의 特화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예로 소리는 귀가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特화된 氣의 운동이며, 빛은 눈이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氣가 特화된 것이며, 음식은 입이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氣가 特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竅와 상응하는 五臟은 각기 特화된 氣를 수용함으로써 독특한 자기만의 氣場을 형성할 수 있다. 즉 五臟은 각기 고유의 발현 기관을 가질 뿐만 아니라 수용기관을 가져 외부의 자극을 기질에 따라 분리하여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五臟은 外竅를 열어 天地의 기운과 교통할 뿐만 아니라, 五臟의 神은 外竅의 정보 수집을 근거로 해서,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인체의 생명활동을 주재한다고 할 수 있다. 五臟은 이러한 다양한 氣質들을 자기의 外竅를 통해 수용하여, 자기의 生命樞機를 작동하는데 보조자로 활용하고, 또 여기에서 얻어진 여러 가지 氣質을 배출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질과 五臟의 반응을 이해하면, 이를 통해 질병 등 이상 징후가 어느 臟으로부터 유래하였는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五臟의 특성에 맞는外界의 氣를 자극 요인으로 활용하여 五臟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생명체의 여러 가지 질환을 개선할 수 있다.⁹⁾

이러한 五臟의 특성에 맞고 特화된 外界의 氣의 한 형태가 音樂이 발하는 氣라고 볼 수 있고, 五臟의 五行屬性에 따라 分化된 音樂의 氣는 하나의 자극이 되어 五臟의 생명활동에 영향을 주므로 여러 가지 疾病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韓方音樂治療法이 된다.

2. 淸熱音樂療法 적용이 가능한 病證

2006년 6월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에 한방음악치료센터가 개설된 이래 2009년 4월까지 한방음

9) 이승현, 홍원식. 오행으로 분류한 음악이 누에의 형질변화에 미치는 영향. 2003. (한방음악치료를 중심으로). 대한한의학원전학회논문집. 2003. 16(2). pp.1-42.

악치료를 받은 사람은 약 520여명으로 2721건 정도의 치료건수를 보이고 있다. 그 중 心火亢炎이나 手足癱瘓의 病證으로 내원한 환자들은 152명으로 이들은 대부분 心火亢炎, 肝陽上亢, 陰虛火動으로 인해 한숨을 쉬고, 胸悶, 頭痛, 眩暈, 不眠 등의 신체적 증상이 동반된 경우가 많았다. 心火亢炎이나 手足癱瘓은 淸熱音樂療法을 사용하는 전형적인 辨證으로 볼 수 있는데, 淸熱音樂療法은 熱이나 火로 인한 病證에 사용되는 한방음악치료방법이다.

熱證이란 熱邪를 感受하거나 陽盛陰虛하여 機體의 기능 활동이 항진을 나타내는 증후이며, 임상적으로 喜冷, 口渴飲冷, 面紅目赤, 煩燥不寧, 小便短赤, 大便秘結 등이 나타난다.

淸열음악요법을 적용할 수 있는 病證으로 다음의 3가지로 크게 분류하여 고찰했다.

1) 心火亢炎

心の 火熱이 내부에서 盛한 것이 특징으로 心病 증상이 나타나면서 裏實熱證에 속한다. 발병은 비교적 급속하고 병정은 짧으며, 정신적 억울, 辛辣物 과식의 경우에 많이 나타난다. 心火가 熾盛하여 內로 心神을 擾亂시키면 心悸失眠하고, 熱이 盛하여 傷津하면 面赤口渴, 尿赤, 大便秘結하며, 心火가 上炎하면 面赤舌紅, 口舌生瘡한다.¹⁰⁾ 心은 血脈을 主하고 藏神하는데, 火熱이 心神에 작용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잘 못자거나, 헛소리를 하고, 심장과 관련된 舌과 小便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五臟熱에서 본 心熱 증상은 속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며, 손바닥이 달아오르면서 헛구역질하는 증상¹¹⁾이 있고, 『素問·刺熱論』에서도 “心熱病者, 先不樂, 數日乃熱. 熱爭則卒心痛, 煩悶善嘔, 頭痛面赤, 無汗.”¹²⁾이라 하였다. 이것은 心の 情志인 喜와 연관하여 즐겁지 못하고, 心の 液인 汗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東醫寶鑑』에서 “七情氣

10) 전국한의학대학 한방병리학교실. 동의병리학. 서울. 일증사. 1999.

11) 허준. 동의보감국역위원회 譯. 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2002. p.1100.

1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19.

鬱, 則舌腫不能語. 心熱則舌破生瘡...”¹³⁾, “心熱則 口苦, 或生瘡.”¹⁴⁾, “口瘡赤者, 心熱.”¹⁵⁾이라 하여 熱로 인해 口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 “臟腑積熱, 頰赤, 煩渴, 口舌生瘡, 五心煩燥, 便尿秘澁, 或溫壯連滯, 致生瘡癰, 癰疽.”, “凡熱皆出於心, 熱甚則能傷血.”¹⁶⁾ 하였는데 오장육부에 積熱이 있으면 뺨이 붉고 번갈이 나고, 입안과 혀가 열며, 손바닥이 뜨겁고 대소변이 잘 나가지 않으며 오저가 생기고, 열이 심하면 혈을 상하게 하여 진액을 손상시킴을 알 수 있다.

2) 肝陽上亢

本證은 肝腎陰虛로 인하여 肝陽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鬱怒와 焦思로 肝이 疎泄을 잃어 氣鬱化火하고 陰血을 손상시켜 陰이 陽을 제약하지 못하여 발생한다. 肝腎陰虛로 陽氣가 逆升하면 氣血이 上逆하므로 面赤烘熱, 頭痛脹感, 眩暈, 耳鳴, 咽乾口燥가 나타나고 神을 안정시킬 수 없으므로 失眠多夢하면 煩躁易怒한다. 上部로는 陽亢하고 下部로는 陰虧하여 上盛下虛의 현상으로 頭重脚輕하며 근골이 滋養받지 못하므로 腰膝酸軟이 나타난다.¹⁷⁾

肝熱 증상은 팔다리가 빠근하고, 대변을 보기 어렵고, 쥐가 나며, 성을 잘 내고, 잘 놀라며, 힘줄이 늘어지고, 힘이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다.¹⁸⁾고 하여 筋의 문제와 肝의 情志인 怒가 잘 發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肝陽上亢은 기의 울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劉完素는 氣의 승강을 중시하여, “氣는 形神物變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로 玄府를 통한 출입승강으로 인체 내외 환경의 평형과 통일을 유지하며, 氣의 升降出入이 通利하지 못하면 陽氣가 拂

鬱하여 諸病을 발생시킬 수 있다.”¹⁹⁾고 하였다.

3) 陰虛火動

陰虛火動의 증상으로는 열이 나고 기침하며 가래를 뱉고 피를 토하며, 오후부터 밤까지 열이 나며, 얼굴과 입술이 붉으며 오줌이 붉고 잘 나가지 않는 것 등이다. 潮熱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약해서 나른하고 몸이 여위며,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없으며, 遺精, 夢泄의 증상도 나타난다.²⁰⁾ 朱丹溪는 陰의 특성을 강조하며 眞陰의 보존을 중시하였다. 心은 君火에 해당하며, 肝腎의 下部에 相火가 존재하여 相火妄動에 의해 陰血을 耗損시키는 병리를 강조하였다. 外物에 의해 君火가 먼저 일어나면, 相火가 妄動하여 陰虛를 일으키며, 陰虛로 氣가 지나치게 상승하고 원활히 하강하지 못하여 鬱을 유발하고, 濕, 痰 등을 겸하기도 하며 熱을 유발한다고 보았다.²¹⁾

이상과 같은 3개 病證의 공통점은 熱이나 火와 관계되어 일어나는 증상으로서 熱證은 대개 外感火熱之邪나 七情鬱火, 食積熱, 勞倦奪精 등으로 인한 陰虛陽亢의 所致이다. 陽熱이 편성하면 身熱喜冷하고 火熱이 傷陰하면 津液이 耗損되어 소변 短赤하고, 津傷하면 引水自救하므로 渴喜飲冷한다. 火性は 炎上하므로 面紅目赤하고, 熱이 心神을 요동하면 煩燥不寧하며, 腸熱液虧하면 반드시 대변이 건조하게 된다.²²⁾ 熱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신체에 나타나는데, 음양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熱證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陰에도 영향을 주어 津액이 손상된 증상들이 함께 나타난다.

熱이 인체의 表에 있으면 發熱, 頭痛하고 丹腫斑黃하고 揭去衣被하고 諸痛瘡瘍하며, 裏에 있으면 瞀悶, 脹滿하고 煩渴喘結하는데 혹은 氣急, 叫吼나 혹은 躁擾, 狂越하기도 한다. 熱이 上에 있으면 頭痛, 目赤하

13) 허준. 동의보감국역위원회 譯. 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2002. p.600.
 14) 허준. 동의보감국역위원회 譯. 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2002. p.601.
 15) 허준. 동의보감국역위원회 譯. 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2002. p.603.
 16) 허준. 동의보감국역위원회 譯. 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2002. p.1107.
 17) 전국한외과대학 한방병리학교실. 동의병리학. 서울. 일중사. 1999. p.475.
 18) 허준. 동의보감국역위원회 譯. 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2002. p.1100.

19) 蔣喜旭. 劉完素의 醫學思想에 關한 研究.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p.116.
 20) 허준. 동의보감국역위원회 譯. 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2002. p.1116.
 21) 金溶珠. 孫一奎의 火熱病機學說에 대한 考察.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p.58.
 22) 전국한외과대학 한방병리학교실. 동의병리학. 서울. 일중사. 1999. p.400.

고 喉瘡, 牙痛하고 諸逆衝上하고 喜冷, 舌黑하며, 下에 있으면 腰足腫痛하고 二便秘澀하고 혹은 熱痛 遺精이나 혹은 溲混便赤하기도 한다.²³⁾ 즉 인체의 表裏上下 部位에 따른 熱의 작용으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난다.

火는 陽盛한 氣가 化生한 것이므로 火熱이라 혼칭하여 쓰는데, 火는 內生한 火熱內擾의 병리반응상태가 된다. 火熱로 된 병에도 內外의 구분이 있어서, 外感에 속하는 경우는 대개 溫熱邪氣를 직접 감수한 까닭이고, 內生에 속하는 것은 항상 臟腑經絡의 陰陽失調로 말미암은 것이다.²⁴⁾

內傷方面에 있어서 劉河間은 五志過傷皆熱의 이론을 내세워 內傷火熱病證을 情志의 측면에서 탐구하였고, 驚, 躁, 擾, 狂越, 妄譫, 鬱 등도 모두 火熱症으로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사람의 情志失常은 모두 心火와 有關하다고 생각하였다. 쯔은 腎에 배속되어 心火亢炎이 腎水쇠약에서 근원한 경우라면 쯔이 발현될 수 있고, 思는 脾에 배속되니 思慮가 과다하면 氣結하고 이로써 陽氣 또한 結하게 되면 結腸 腸胃가 佛熱鬱結하므로 思도 火와의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張子和는 內傷부분에 속하는 ‘喜怒憂悲思驚勞’는 모두 心火와 有關하다고 생각하여 平心火를 치료원칙으로 삼았다.²⁵⁾ 즉 감정의 過함은 火熱을 일으키는 내적인 원인이 된다.

火熱을 치료하는 방법은 清熱瀉火인데, 清은 熱을 내려 맑게 한다는 것이다. 臟腑에 熱이 있으면 清熱시켜야 한다. 무릇 六淫의 邪는 中寒과 寒濕을 제외하면 모두 병적인 熱이 아닌 것이 없으니, 熱氣가 혼증하면 口, 舌, 脣, 齒에 나타나거나 구갈을 보이고 소변, 대변에도 나타난다. 주단계는 實火의 치료원칙을 實火를 瀉함에 있어서 肝木이 實火의 근원이 됨을 강조하여 주로 肝火를 瀉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降調心火를 중시하였다. 肝木은 心火의 母로서 易動하

는 相火를 가지고 있어서 肝木이 和平하지 못하면 火熱이 熾盛한다고 하였다.²⁶⁾ 또 清熱약은 너무 오래 믿으면 안 되고 반드시 滋陰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²⁷⁾고 하였다. 또한 熱을 退治하는 법은 전적으로 清心하는데 있다. 心이 清하지 않으면 火가 妄動하여 熱이 退散하지 않는 법이다.²⁸⁾라고 하여 陰陽의 편차와 情志를 주관하는 心에 대한 치료법도 고려할 것을 나타내고 있다.

3. 各病證에 따른 清熱音樂療法の 실시방법

1) 心火亢炎

心火亢炎은 心의 實證으로 볼 수 있는데, 裏實熱證이기 때문에 보통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초조감이나 불안감이 있으며, 열감이 있거나 눈의 충혈, 정신불안, 강박증, 오심, 구토 등이 있고 혀끝 부위가 진홍색을 띤다. 心火가 上炎하면 面赤舌紅, 口舌生瘡한다.²⁹⁾ 心은 血脈을 主하고 藏神하는데, 火熱이 心神에 작용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잘 못자거나, 헛소리를 하고, 심장과 관련된 舌과 小便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시방법으로는 心火亢炎을 清熱瀉火해야 하기 때문에 金氣音樂을 사용한다. 구체적인 악곡으로는 대금으로 연주하는 청성곡을 치료에 사용한다. 堯天舜日之曲이라고도 불리는 청성곡은 역취법과 저취법의 지속음이 조화를 이루어 청아하고 맑은 소리를 발하는 대금의 음색과 긴 지속음의 사이사이에 다양한 꾸밈음 주법들 특히 상청에서의 장쾌한 청 울림으로 그 가락이 힘차고 청아하여 收斂之氣를 발한다. 대금은 清熱音樂療法の 악곡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악기이

23) 장개빈. 김영남 國譯. 景岳全書. 서울. 一中社. 1992. p.23.
 24) 전국한의과대학심계내과학교실. 心系內科學. 서울. 군자출판사. 2006. p.114.
 25) 金知權. 難經 第七十五難을 中心으로 한 金元四大家의 火熱論에 대한 文獻의 研究.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11.

26) 金知權. 難經 第七十五難을 中心으로 한 金元四大家의 火熱論에 대한 文獻의 研究.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39.
 27) 경희대학교한의과대학 제50기 졸업준비위원회 對譯. 醫學心悟. 서울. 도서출판 정담. 2002.
 28) 전국한의과대학심계내과학교실. 心系內科學. 서울. 군자출판사. 2006. p.121.
 29) 전국한의과대학 한방병리학교실. 동의병리학. 서울. 일증사. 1999.

다. 연주악기로는 핸드벨도 사용하는데, 처음에는 음계에 대한 스케일 연습을 시키고 이후에 연주를 시작한다. 치료사와 같이 쉬운 악곡부터 8마디정도의 악절을 반복시킨 이후 화음 연주를 병행하는데 보통 1도, 4도, 5도를 시행한다.

다음으로는 곳거리장단의 구음을 손장단에 맞춰 5회 실시한 후 病證에 따라 투여하는 악기를 구분하여 각각 소고, 장구, 팽과리, 트라이앵글을 치면서 구음을 3회 실시한다. 악기를 실행할 때도 환자의 病證과 병의 機轉을 살펴서 투여하는데, 心火亢炎은 肝氣鬱結을 겸한 환자들이 많이 있어 이런 경우에는 청열음약요법을 시행하되 解鬱音樂療法을 주로 쓰면서 清熱音樂療法은 副로 써야한다. 『丹溪心法』에서는 “氣血沖和, 百病不生, 一有怫鬱, 諸病生焉.”이라 하여 氣의 鬱結로 인하여 모든 병이 올 수 있다고 했다. 鬱證은 크게 虛證과 實證으로 나눌 수 있다. 虛證의 경우에는 心脾의 陽氣가 虛하여 氣가 상승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實證의 경우에는 氣의 鬱結, 특히 肝氣가 鬱結되어 막히는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靈樞』 「本神篇」에서는 “憂愁者, 氣閉塞而不通.”이라 하여 기울 중에서도 肝氣鬱結로 인한 閉塞이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疏肝理氣하여 解鬱시키는 치료법을 사용하게 된다.³⁰⁾

2) 肝陽上亢

肝陽上亢은 肝의 實證으로 볼 수 있는데, 안정되지 못한 지나친 움직임이나 안구충혈, 耳鳴, 상역감이 나타나기도 하고 감정이 흥분되어있고 초조하게 말하거나 안구 건조감이 있다. 또다른 증상으로는 신경과민으로 불면증이 있어 화를 잘 낸다든지 두통, 어지럼증, 어깨 결림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때는 肝陽上亢를 소통시키기 위해서 먼저 木氣音樂 중에서도 가볍게 촉동하는 음악을 사용하여 肝氣를 부드럽게 풀어주어야 한다. 구체적인 악곡으로는 황병기 가야금곡 전설 中 III곡 놀이, IV곡 춤 등

30) 이승현, 백유상, 김여진. 機轉과 辨證에 따른 한방음악치료의 방법 연구(I). 한방음악치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5. p.45.

을 치료에 쓴다. 그 후 土氣音樂에 맞춰 우드블럭을 사용하여 약 10분 정도 오행리듬을 따라 치게 한다. 마무리 리듬으로는 1박자의 길이로 숨을 들이쉬고 4박자 길이로 숨을 내쉬어서 1:4이 비율로 호흡을 진행하고 이때 호흡에 맞추어 우드블럭을 친다.

3) 陰虛火動

陰虛火動으로 火가 動하여 잠이 오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은 煩熱, 口乾, 舌紅 등을 보는데, 이때는 陰精을 補하는 요법과 겸하여 清熱音樂療法을 써야한다.

陰虛火動으로 清熱音樂療法을 실행할 때는 精을 갈무리하여 藏精 하는 것을 돕는 악곡을 써야하므로 氣를 모아서 潛藏하는 것을 돕는 水氣音樂을 사용한다. 구체적인 악곡으로는 거문고 산조 中 진양조를 치료에 쓴다. 술대로 쳐서 소리를 발하는 거문고는 왼손으로 껀를 짚어야만 음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거문고는 깊고 무게 있는 남성적인 악기로 특히 느리게 움직이는 진양조에서는 음악적 깊이와 무게가 하현중심의 선율과 어우러져 潛藏之氣를 發하여 陰虛火動 치료를 돕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清熱音樂療法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환자의 病證과 병의 機轉을 살펴서 그에 맞는 治療法을 시행해야 한다. 清熱音樂療法에서는 金氣音樂과 水氣音樂을 주로 사용하여 清熱瀉火시킨다. 맨 먼저 音樂을 투여하거나 악기연주 이전에 水氣音樂에 맞춘 복식호흡을 시켜서 음악 자극이 투여될 수 있도록 몸을 調律한다.

III. 結論

한방음악치료에 쓰이는 17가지 요법 중의 하나인 清熱音樂療法에 대하여 그 機法이 적용 가능한 病證과 실시방법에 대해 고찰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心火亢炎, 肝陽上亢, 陰虛火動은 清熱音樂療法

을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病證으로 볼 수 있다.

2. 心火亢炎은 裏實熱證으로 清熱瀉火해야 하기 때문에 金氣音樂을 사용한다. 心火亢炎의 경우 肝氣鬱結을 겸한 환자들이 많고, 肝氣鬱結로 인한 閉塞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에는 疏肝理氣하여 解鬱시키는 치료법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청열음악요법을 시행하되 解鬱音樂療法을 주로 쓰면서 清熱音樂療法은 보조로 써야한다.

3. 肝陽上亢를 소통시키기 위해서 먼저 木氣音樂 중에서도 가볍게 촉동하는 음악을 사용하여 肝氣를 부드럽게 풀어주어야 한다. 그 후 土氣音樂에 맞춰 1박자의 길이로 숨을 들이쉬고 4박자 길이로 숨을 내쉬어서 1:4이 비율로 호흡을 진행하면서 호흡에 맞추어 우드블럭을 친다.

4. 陰虛火動의 경우도 清熱音樂療法을 쓰는데, 이때는 陰精을 補하는 요법과 겸하여 清熱音樂療法을 써야한다.

參考文獻

<단행본>

1. 전국한 의과대학심계내과학교실. 心系內科學. 서울. 군자출판사. 2006. p.114, 121.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15.
3. 허준. 동의보감. 동의보감국역위원회 譯. 서울. 범인문화사. 2002. p.1100, 1107, 1116. pp.600-603.
4. 전국한 의과대학 한방병리학교실. 동의병리학. 서울. 일중사. p.400, 475, 497.
5. 장개빈. 景岳全書. 김영남 國譯. 서울. 一中社. 1992. p.23.
6. 경희대학교한 의과대학 제50기 졸업준비위원회 對譯. 醫學心悟. 서울. 도서출판 정담. 2002. p.95.

<논문>

1. 이승현, 백상용. 생명운동과 성음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방음악치료의 이론연구 I). 한국한 의학 연구원 논문집. 2002. 8(1). pp.27-43.
2. 이승현, 백상용. 삼음삼양과 율려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대한한 의학원전학회논문집. 2002. 15(2). pp.67-84.
3. 이승현. 오행이론을 기초로 한 음악이 식물의 발아에 미치는 영향. 세술음악연구회 논문집. 2002. pp.183-193.
4. 이승현, 홍원식. 오행으로 분류한 음악이 누에의 형질변화에 미치는 영향(한방음악치료를 중심으로). 대한한 의학원전학회논문집. 2003. 16(2). pp.1-42.
5. 이승현, 백유상의 2인. 혈액암 환자에게 실행한 한방음악치료 요법이 백혈구 내 ANC(절대호중구수)수치 증가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 의학원전학회지. 2005. 18(2). pp.190-204.
6. 蔣喜旭. 劉完素의 醫學思想에 關한 研究.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p.116.
7. 金溶珠. 孫 一奎의 火熱病機學說에 對한 考察.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p.58.
8. 金知權. 難經 第七十五難을 中心으로 한 金元四大家의 火熱論에 對한 文獻的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11, 39.
9. 이승현, 백유상, 김여진. 機轉과 辨證에 따른 한방음악치료의 방법 연구(I). 한방음악치료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2005. p.45.